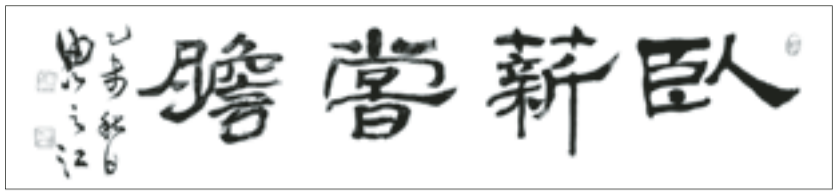


■ 고사성어 ㉔



와신상담(臥薪嘗膽)

삶 위에서 잠을 자고 쓸개를 훔는다 는 뜻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온갖 고난을 참고 견디는 비유.

춘추시대, 월왕(越王) 구천(勾踐)과 취리(稽李: 절강성 가흥(浙江省嘉興))에서 싸워 크게 패한 오왕(吳王) 합려(閻闢)는 적의 화살에 부상한 손가락의 상처가 악화하는 바람에 목숨을 잃었다(B.C. 496).

임종때 합려는 태자인 부차(夫差)에게 반드시 구천을 쳐서 원수를 갚으라고 유령(遺命)했다.

오왕이 된 부차는 부왕(父王)의 유령을 잊지 않으려고 '삶 위에서 잠을 자고(臥薪)' 자기 밤을 드나드는 신하들에게는 방문 앞에서 부왕의 유령을 외치게 했다.

"부차야, 월왕 구천이 너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때마다 부차는 임종 때 부왕에게 한 그대로 대답했다. "예, 결코 잊지

않고 3년 안에 꼭 원수를 갚겠다이다. "이처럼 밤낮 없이 복수를 맹세한 부차는 은밀히 군사를 훈련하면서 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이 사실을 안 월왕 구천은 참모인 범려(範蠡)가 간(諫)했으니 듣지 않고 선제공격을 감행했다. 그러나 월나라 군사는 복수심에 불타는 오나라 군사에 대패하여 회계산(會稽山)으로 도망갔다. 오나라 군사가 포위하자 진퇴양난에 빠진 구천은 범려의 헌책(獻策)에 따라 우선 오나라의 재상 백비(伯嚭)에게 많은 뇌물을 준 뒤 부차에게 신하가 되겠다고 항복을 청원했다. 이때 오나라의 중신 오자사(伍子胥)가 "후환을 남기지 않으려면 지금 구천을 쳐야 한다"고 간했으나 부차는 백비의 조언에 따라 구천의 청원을 받아들이고 귀국까지 허락했다.

구천은 오나라의 속령(屬領)이 된 고국으로 돌아오자 항상 곁에다 쓸개



由江 權丞世

경북 영주생 검교공파 34세
HP: 010-5483-7511
E-mail: ykks77@naver.com
-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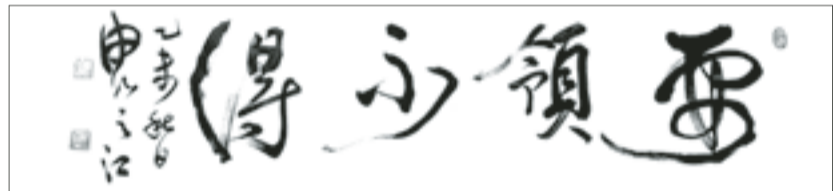
- 개인전체, 초대그룹전 전체
- 대한민국미술대전 은인회부문 심사위원 역임
- 한국미술협회 이사 역임
- 영남미술협회 이사장
- 유망 세화연구원 회장

를 누르고 앉으나 서나 그 쓴맛을 맛보며(嘗膽) 회계의 치욕(會稽之恥)을 상기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밭 갈고 길잡하는 농군이 되어 은밀히 군사를 훈련하며 복수의 기회를 노렸다. 회계의 치욕의 날로부터 12년이 지난 그해(B.C. 492) 봄, 부차가 천하에 패권(霸權)을 일컫기 위해 기(杞) 땅의 황지(黃池: 하남 성기현(河南省杞縣))에서 제후들과 회맹(會盟)하고 있는 사이에 구천은 군사를 이끌고 오나라로 쳐들어갔다.

그로부터 역전(易戰) 7년 만에 오나라의 도읍 고소(故蘇: 소주(蘇州)에 유박한 구천은 오왕 부차를 굴복시키고 마침내 회계의 치욕을 씻었다.

부차는 용동(勇東: 절강성정하(定河))에서 여생을 보내라는 구천의 호의를 사양하고 자결했다. 그 후 구천은 부차를 대신하여 천하의 패자(覇者)가 되었다.



요령부득(要領不得)

사물의 중요한 부분을 잡을 수 없다는 뜻으로, 말이나 글의 요령을 잡을 수 없음을 이르는 말.

전한(前漢) 7대 황제인 무제(武帝) 때의 일이다. 당시 만리장성 밖은 수수께끼의 땅이었다. 그러나 유명한 흉노는 동쪽 열하(熱河)에서부터 서쪽 투르키스탄(중앙 아시아 지방)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세력을 펴고 빈번히 한 나라를 침범 약탈했다.

그래서 무제는 기원전 2세기 중반에 흉노에게 쫓겨 농서(隴西: 감숙성(甘肅省))에서 서쪽 사막 밖으로 옮겨간 월지(月氏: 대월(大月氏))와 손잡고 흉노를 협공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월지에 다녀올 사신을 공모한 곁과 장건(張騫?B.C.114)이란 관리가 뽑혔다.

건원(建元) 3년(B.C. 138), 장건은 100여 명의 수행원을 거느리고 서쪽 이리(伊黎: 위구르 자치구 내)란 곳

에 있다는 것밖에 모르는 월지를 찾아 장안(長安: 서안(西安))을 떠났다. 그러나 그들은 농서를 벗어나자마자 흉노에게 잡히고 말았다.

이때부터 흉노와의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장건은 활짝 트인 성격으로 해서 흉노에게 호감을 사 장가도 들고 아들까지 낳았다. 그러나 그는 잠시도 탈출할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포로가 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장건은 처자와 일행을 데리고 서방으로 탈출하는데 성공했다.

우뚝 솟은 천산(天山)산맥의 남쪽 기슭을 따라 타림 분지를 횡단한 그들은 대원국(大宛國·강거국(康居國))을 거쳐 마침내 아무 강 북쪽에 있는 월지의 궁전에 도착했다.

장건은 곧 월지의 왕을 알현하고 무제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왕의 대답은 의외로 부정적

이었다. "월지는 서천(西遷) 이후 기름진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아왔다. 그러나 백성은 이제 구원(舊怨)을 씻기 위한 그런 쓸데없는 전쟁은 원치 않을 것이다."

장건은 여기서 단념하지 않고 당시 월지의 속국인 대하국(大夏國)까지 찾아가 월지를 움직이려 했으나 허사였다.

이 일을 사서(史書)는 이렇게 적고 있다. "끝내 사명으로 하는 월지의 '요령을 얻지 못한 채(要領不得)' 체류한 지 1년이 지나 귀국길에 올랐다."

"장건은 귀국 도중에 또 흉노에게 잡혀 1년 넘게 억류되었으나 부하 한 사람과 탈출, 13년 만에 장안으로 돌아왔다(B.C.126). 그로부터 3년 후 박망후(博望侯)에 봉해진 장건은 계속 서역(西域) 사업에 힘썼는데 그의 대어행은 중국 역사에 많은 것을 남기는 계기가 되었다. 우선 동서의 교통이 트이면서 서방으로부터 명마(名馬)·보석·비파(琵琶)·수박·석류·포도 등이 들어오고 한나라로 부터는 금과 비단 등이 수출되기 시작했다. 이른바 '실크 로드'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 우강 권이혁 전 장관 에세이

아리랑

6·25 전쟁 61주년인 지난 2011년 6월 25일을 전후해서 KBS TV에서는 '한국의 유산'이라는 프로에서 어느 미국 노병사가 부르는 '아리랑'을 되풀이 방영하였다. 80이 넘은 이 노 병사는 6·25전쟁때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참전하였는데 그때 '아리랑을 알게 되었던 모양이다. 사실 '아리랑이 한국 사람에게는 가장 애창되는 국민가요이며, 근래에는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입은 심리도 못가서 발방이 난다"라는 노래는 제아무리 읊제라고 하여도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부를 수 있다.

그런데 희한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친숙한 '아리랑'이지만 가사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작곡을 하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문득 '아리랑 고개'를 떠올려보게 된다. 돈암동 사거리에서 정릉동 아리랑 시장에 이르는 고갯길을 '아리랑 고개' 또는 '정릉고개'라고 부른다. 옛날에는 정릉으로 가는 고개라 하여 '정릉고개'라고 불렀으나 1926년에 영화 '아리랑'이 이 고개에서 촬영된 후부터는 '아리랑 고개'로 불리운다. 폭 15m, 길이 1,450m의 2차선 도로였는데 요사이는 상당히 현대화 되었다. 서울시 내의 도로가 '대로'·'로'·'길'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만은 유일하게 '고개'로 남아있다.

'아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원래의 '아리랑'을 본조(本調) 아리랑이라고 하며 이 밖에 '밀알아리랑', '강원도 아리랑', '정선아리랑', '진도아리랑', '긴 아리랑' 등 여러 가지 별조(別調) 아리랑이 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길이 없지만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개조되기도 한 것이 분명하다.

어렸을 때에 '아리랑'이라는 영화를 관람하고 몹시 충격을 받았던 적이 생각난다. 종로 2가에 있던 우미관(優美館) 아니면, 종로 5가에 있던 제일극장이라는 영화관에서 관람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 영화는 1926년에 고 나운규가 감독하고 주연한 무성 흑백영화이다. 그 당시 열을 올리면서 흥분을 토하던 변사의 모습이 지금도 생각난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3·1운동의 실패로 충격을 받아 미처버린 영진이라는 젊은이와 그의 여동생 영희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이다. 영진을 찾아온 친구 현구가 영희에게 반해서 사랑에 빠지게 된다. 그들의 애뜻한 사랑이 잘 그려져 있다.

악덕 지주의 머슴이자, 친일파인 기호가 농악제가 벌어지던 날 영희를 겁탈하려고 한다. 이 광경을 본 현구가 영희를 구하기 위해 기호와 난투극을 벌인다. 그런데 실성한 영진은 이 광경을 재미있게 여긴다. 그러다가 갑자기 환상에 빠져든 영진이 돌발적으로 낮을 휘둘러 기호를 죽인다. 그리고는 맑은 정신으로 돌아온다. 일본 경찰에게 끌려가는 영진의 뒤에서는 '아리랑'이 울려 퍼진다.

나운규가 주인공 영진역을 맡고 신일선이 영희역, 현구역을 남궁운, 악덕 지주의 청지기 기호역을 주인공이 각각 맡고 있었다.

이 영화는 일제 강점기에 민족주의와 독립정신을 고양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하는 한편, 한국영화를 예술로 끌어올리는 데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이 영화로 나운규는 한국영화계에 큰 획을 그



는 거장이 되었다. 나는 '아리랑'을 들을 때마다 영화 '아리랑'을 회상하게 되며 나운규의 예술성에 경의를 표하게 된다.

영화 '아리랑'의 주제가 '신(新)아리랑'이 폭발적으로 유행하였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신 아리랑'은 양명문이 작사하였고 김동진이 작곡하였다. 가사는 다음과 같다.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요
한국화 시들듯 시들어도 안 오네
서산엔 달도 지고 홀로 안락개울에
가슴에 얹힌 정 풀어도 길 없여라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초가집 삼강을 처산 밑에 짓고
흐르는 시냇처럼 살아 불개나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의 유래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여러 설이 있다.

①아랑설(阿娘說): 옛날 밀양 사포의 딸 아랑이 관리의 요구에 항거하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이를 대도하기 위하여 생겼다는 설.

②알영설(假英說):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朴赫居世)의 비 알영을 찬미하여 '알영 알영'하고 노래를 부른 것이 '아리랑 아리랑'으로 변하였다는 설.

③아이룡설(我耳龍說: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 경복궁을 중수하였을 때 백성들이 원납금(願納金)성화에 못 견뎌 "단원아이룡 불문원납성"(但願我耳龍不聞願納聲: 원하노니 내 귀나 어두워져라, 원납소리 듣기도 싫구나)하고 부른 '아이룡(我耳龍)'이 '아리랑으로'와전되었다는 설. (중략)



생활속의 한방건강

뇌가 건강하면 내가 건강하다!

건강한 사람을 떠올리면 어떤 형태로 그려질까?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건강하고 몸의 활동이 원활하다. 이러한 활동원천은 뇌의 작용으로, 결국 몸의 건강은 뇌의 건강이다. 신체기능을 주관하는 뇌간, 생각을 주관하는 대뇌피질, 감정을 주관하는 대뇌변연계의 뇌 부위가 다르다. 우리가 인식하는 뇌의 기억 활동은 약 5-7cm크기의 '해마'에서 이루어진다. 결국 머리전체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뇌는 특히 시각 및 청각, 손의 감각과 밀접하다.

건강한 뇌를 만들기 위해서, 첫째로 명상, 기도, 마인드컨트롤 등의 마음훈련이 필요하다. 우리는 긍정적인 가치와 생각을 함으로써 뇌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감성훈련을 통해 감정 의 노폐물을 잘 배출하는 것도 필요하다. 감정의 부스러기가 남아 있게 되면 좋은 생각을 가진다 해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현대인이 갖는 스트레스는 감정찌꺼기의 주범이다. 긍정적인 생각은 좋은 에너지를 모으나, 찌꺼기의 배출은 에너지를 이완시켜야 한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은 비교적 쉽고 편안한 배출구를 열어준다.

둘째, 뇌에 적절한 자극을 주는 유산소 운동은 사람의 뇌혈관을 강화시키고,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잘 전달시켜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되고 뇌 개발도 가능하다. 손가락 끝 지문부위로 머리를 가볍게 두드림, 양손바닥으로 머리를 살면서 감싸쥐 등으로 머리에 자극을 주는 간단한 방법도 도움이 된다. 동시에 내 몸이 좋아진다고, 회복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병행되면 금상첨화이다. 운동의 마무리는 몸의 에너지가 적체되지 않고 잘 흐르게 손바닥 등으로 쓸어버리면서 하되, 여유롭게 관조하는 마음과 속면도 동반하면 좋다.

■ 역사기행

면암(勉庵)최익현(崔益鉉)선생의 행적지(行蹟地)를 찾아서

□ 향촌 권오창 (본원 지문위원)



<지난호에 이어>
국가재정확보를 위한 세원을 철저히 조사하여 세수를 증대시켰다. 또한 양반도 세금을 내게하였고 잡세와 지방특산물 진상제도를 폐지하였다.

민생순화를 위하여 사회악습을 고치고 의복시를 간소화 시켰다.
특히 당쟁의 고질적인 원인이 되었던 서원을 철폐하고 비변사를 정무와 군무로 분리하여 행정조직을 개편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른 법령을 재정비하였다. 그러나 왕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일관으로 임난때 불타던 경복궁을 증건하면서 재정부족을 조래하였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당백정을 발형하여 화폐가치가 폭락하였다.

또한 한양도성의 4대문 통행세를 징수하였다. 뿐만 아니라 궁궐 건축자재인 거목과 거석을 징발하여 민간의 원성을 샀다.
더욱이 외국세력을 배척하여 전국적으로 철화비를 세우고 해국정책을 강화하였으며 자주개혁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많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이러한 차제에 고종(高宗)의 원자책 봉문제가 제기 되어 1888년(고종5년) 후궁 이상궁이 낳은 완화군이 거론되

자 민비(慶妃)는 소생이 없는 처지에서 불안한 상태였다.

그러나 민비는 1871년(고종8년)왕자를 출산하였으나 출산 5일만에 죽고 만다. 궁궐통계 그 시기에 13세가 되었던 완화군이 갑자기 죽게된다. 차제에 민비는 이상궁을 궁궐밖으로 쫓아 낸다. 민비는 그 후 최익현 조영하 김병기 이재민 등을 끌어들이 대원군을 실각시키는 수순을 밟는다. 대원군이 정계에서 물러나자 조정은 민씨일족이 장악한다.

앞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이를 반대하는 운동과 의병활동이 전개 되었으며 고종이 일제의 강요로 1907년 7월20일에 물러난다. 또한 주권과 외교권을 박탈 당하였다.
당시 의병활동을 하였던 최익현선생은 체포되어 대마도에 유배의 길을 떠난다. 유배지를 국내에 택할 경우에는 또다시 의병을 일으킬 우려를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선생은 부산항을 떠날 때에 "나는 일본땅을 결코 밟지 않겠다"라고 하고 신발속에 대한제국의 흙을 넣고 배를 탔다. 그 흙은 유배지에서 순국할때까지 간직하였다.

그러나 대마도 유배지에서 단식으로 세상을 떠난다. 선생의 시신이 부산라에서 나흘간 머물렀다. 이 곳에 선생의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1986년 슈젠지(수선사)뜰앞에 "대한인 최익현선생 순국지비"를 건립하였다. 이 절은 수도(修道)를 위한 절이 아니고 죽은 사람의 혼령을 위로하기 위하여 세운 절이며 공동묘지와 같은 성격이다.

국내에서는 철갑산 산록에 청량군청에서 철갑산 공원개발계획에 의거 면암 최익현선생의 입석동상이 세워져 있고 순창에서는 최익현선생의 의병장으로서 조직과 무기를 가추고 대구로 항전을 감행하였던 사적에 대한 기록을 강천산 군립공원 강천사 앞에 독립운동기념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가 외침이나 전란 등 위기에 봉착할 경우에 이에 대응하여 자발적인 봉기가 민병 또는 의병이다.

이를 먼저 깨닫고 실현하신 분이 한말에 면암 최익현선생이다. 선생이 남긴 뜻깊은 행적지를 찾아보면서 항일운동의 선구자적 활동을 하신 선생의 동상비석 앞에서 광복절 묵념을 올리자는 바이다. <끝>



재미있는 나무 이야기 ㉔

배나무

□ 靑南 權寧漢 (안동전통문화연구회 회장)



이른 봄, 그렇게도 맑고 깨끗한 흰 꽃을 피우던 배나무 가지에 지금 이 가을에는 붉고 먹음직한 배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물이 많고 꽃 색깔만큼이나 흰 살을 가진 배 맛은 더할 수 없이 상쾌하고 연하며, 시원합니다.

과음이나 과식을 해서 속이 더부룩할 때, 이 배 하나를 깎아 먹으면 곧 시원한 트림이 나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입 과일인 텃밭한 배나 키우기 귀기 따위는 비교도 되지 않는 상쾌하고 담백한 맛은 역시 배를 과일의 왕자로 올려 놓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흰색을 좋아하

는 백의민족으로, 무엇이든 깨끗하고 순결한 것을 좋아해 왔습니다. 그래서 꽃도 흰색 꽃이면 무슨 꽃이라도 각별히 좋아했는데, 특히 이른 봄에 다른 꽃들이 별로 없을 때 눈부시도록 희고 아름다운 배꽃은 많은 선현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옛 시에는 배꽃을 소재로 한 시와 글이 많습니다.

임백호 씨의 '규원(龜源)시(詩)에 다음과 같은 시가 있습니다.
十五越溪女 羞人無語別 歸來擁重門 泣向梨花月
시냇가를 넘어 열다섯 살 처녀는
수줍어 한 마디 말도 없이
돌아와 문을 잠가 놓고 흐느껴 운다.

배꽃에 어린 담그림자를 보고.
오즈음 열다섯 살 처녀라던 울적한 기분이 틀 때 과연 몇 사람이 홀로 문을 잠그고 달을 보고 눈물을 흘릴까요?

사람이 운다는 것은 정말로 순수한 감정이 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빠서 울거나 슬퍼서 울거나 울 때에는 틀림없이 마음이 순수한 상태일 것입니다.

가수이셨던 고 이난영씨가 부른 노래, '목동의 눈물' 때문에 더 유명해진목포 유달산에는 고 이난영씨의 노래비가 지금도 서 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난영, 그는 떠나갔어도
그가 남긴 노래는
길이 우리네 가슴속에 살아 있다.
눈물 없이 부를 수 없는 그의 노래...
살아 있는 보석은 눈물이다...

이 글 중에서 '살아 있는 보석은 눈물이다. '맑는 말이 너무나 내 가슴에 뜨겁게 와 달기에 지금까지도 이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략)